

##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들 1860년대 러시아의 세대 갈등과 세대 내 갈등

한 정 숙

(서울대 서양사학과)

### 1. 머리말: 역사학에서의 ‘세대’

사회현상을 다루는 데 “세대”(世代 generation)라는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인식은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화에서 권력을 가진 아버지와 가진 것 없는 아들 사이의 세대 갈등은 우라노스-크로노스-제우스 사이의 삼대에 걸친 싸움에서 아버지(크로노스)가 할아버지(우라노스)를, 그리고 이어서 아들(제우스)이 아버지(크로노스)를 제거하고 권력을 차지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묘사되었고 국왕인 아버지 라이오스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떠돌이 아들 오이디푸스 이야기에서도 그 상징적 형상을 얻었다. 프로이트는 이른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성에 권력”(性愛 權力)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여 참으로 깊고도 소란스러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갈등이 단지 성애적 욕망을 둘러싸고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주 제 어: 세대갈등, 세대 내 갈등, 급진주의, 러시아 인텔리겐치야, 1860년대 혁명운동  
generational conflict, intra-generational conflict, radicalism, Russian  
intelligentsia, revolutionary movement of the 1860s

현대 학문에서 사회집단들 간의 세력관계 및 사회적 변화를 살피는 데서 세대의 문제를 이론화하는 데 가장 선구적인 역할을 한 이는 사회학자 칼 만하임이었다. “‘세대’라는 사회현상은 다름 아닌 특정한 종류의 위치 정체성(identity of location)을 대변하는 것이며, 이는 역사적-사회적 과정 속에 자리잡고 있는 유관한 ‘연령집단’을 포괄한다.”고 한 그의 명제 (Mannheim, K. 1952, 2007: 292)는 세대라는 요인에 대한 학문적 성찰이 유효하고 유의미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지식사회학의 한 분야로서 세대론을 전개한 만하임의 이론은 역사학에서도 널리 수용되어, 이미 적지 않은 학자들이 역사 속의 중요한 현상을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sup>1)</sup> 특히 청년집단의 특수한 정치적 경향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학자들은 세대라는 요인에 남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역사학이나 사회과학에서 사회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세대는 단순한 생물학적 연령집단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만하임이 말한 대로 ‘역사적 사회적 과정 속에 자리 잡은 연령집단’이다. 다시 말해 대략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이 어떤 시기에 역사적 사회적으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연령집단의 동시대인들과 현저히 구분되는 행동, 감정, 사고의 방식을 가질 때 이 연령집단은 의미를 가진다 (Pilcher, J. 1994: 483; Demartini, J. R. 1985: 2). 사회학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경험공유 연령집단을 지칭하기 위해 ‘코호트’(cohort)라는 별도의 용어를 주로 사용하지만(Ryder, N. B. 1965: 843-861) 역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세대’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Spitzer, A. 1973:1354).

세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수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한 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엄밀한 정의라는 것은 사실은 삶의 복잡성과 복잡성을 무시하는 대가로 얻어지는 종이 위의 명징성에 불과한 것일 터이고, 역사학자들은 그 같은 철저성에 집착하지 않고도 세대라는 개념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왔다.<sup>2)</sup> 특히 사회적인 격변이나 정치적 변화, 문화적인 전환이 폭발적

1) 물론 아직까지는 만하임의 선구적 이론이 실제 경험과학에서는 드물게, 그리고 제한된 범위로만 적용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학자도 있다(Cherrington R. 1997 : 302-303).

형태로 일어나는 사회에서 수학적 엄밀성을 가진 세대 기준을 적용하려 든다는 것은 인문학적 사고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럼에도 세대라는 그릇에 담은 만한 특정한 현상이 있고 이것이 사회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는 이제는 특별한 통찰력이 필요하지 않다.

러시아 역사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이 사회의 전개방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예는 적지 않다. 통치자 가문 내 세대 갈등이 노선 갈등의 성격을 띠면서 전개되다가 파국적 결과를 가져온 경우로는 서구화를 지향하던 부친 표트르 1세 황제와 그의 아들이면서 전통적인 구(舊)귀족 세력의 추종을 받고 있던 황태자 알렉세이의 대립이 후자의 비극적 죽음을 초래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비록 역사학에서 주목의 대상이 될 만한 정치적·사회적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둘러싼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 의미의 세대 집단 사이의 갈등이라기보다 정치적 성향, 기질, 목표의식의 차에 따른 개인으로서의 아버지와 개인으로서의 아들 사이의 갈등의 한 극단적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특정 연령대의 집단이 윗세대와는 다른 정치적 문화적 지향성을 드러내고 이를 표현하여 사회변화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은 아무래도 19세기 이후의 역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고방식, 행동방식을 지니며, 무엇보다도 윗세대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세대적 자의식”(generational self-consciousness)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여 정치, 사회, 문화적, 지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특히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sup>3)</sup> 바로 그러한 시기였던 19세기에 러

2) 스피처는 20세기 서구역사학에서 세대론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작업 가운데 가장 빼어난 성과는 마주아예 (Louis Mazoyer)의 논문 “Catégories d'âge et groupes sociales. Les Jeunes Générations française de 1830”, *Annales*, 10 (1938)이라고 평한다(Spitzer, A. 1973: 1354).

3) 세대의식의 출현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사회적 이동성의 증대, 사회변화의 가속화, 대중매체의 발달, 대학생의 증가, 지역적 연대의 붕괴 등을 세대의식 출현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념의 확산, 부르주아지의 대두 등을 요인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Hazlett, J. D. 1992: 79 를 참조하시오.

시아의 젊은 세대는 윗세대와 다른 경험을 가지고 다른 행동방식,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고 근대화 과정에서 빚어지는 신규 세대갈등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1840년대 세대와 1860년대 세대의 갈등과 대립은 투르게네프의 소설 『아버지와 아들들』에서 그려진 후 그야말로 다양하고도 격렬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서 1840년대 세대, 1860년대 세대는 각기 그 시기에 출생한 세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청년기를 맞이하거나 가장 왕성한 활동기를 맞이한 세대를 뜻한다.

흔히 ‘60년대 사람들’(шестидесятники)이라 통칭되는 러시아의 1860년대 세대<sup>4)</sup>는 루시앵 페브르가 말하는 두 가지 다른 의미의 세대 개념에서 모두 중요성을 가지는 집단이다. 그 하나는 이들이 윗세대와는 현저히 구분되는 정치적, 문화적 특징을 가지는 집단이라는 의미의 세대 집단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이 소수파 연령집단, 곧 급진적 소수파를 형성하는 “청년” 집단으로서 대학생들 및 그 주변 인물들을 구성한다는 점이다(Spitzer, A. 1973: 1358-1359).

역사학에서 아버지와 아들 세대의 대립, 혹은 아들 세대에 속하는 1860년대 지식인의 특징에 대해서는 연구가 적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sup>5)</sup> 이들의 독특한

4) 러시아 역사에서 1860년대 세대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60년대 사람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또 있다. 그것은 흐루시초프 개혁의 영향을 받아 이전 시기에 비해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활동하면서 개혁적, 사회비판적 사고를 형성한 1960년대 세대를 가리킨다. 따라서 ‘60년대 사람들’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문맥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5) 일반 독자가 접근할 수 있는 국내문헌으로는 이 인호, 『1860년대 러시아의 급진주의 운동: -해석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 『러시아 지성사 연구』(문학과 지성사, 1980), 73-95쪽을 들 수 있다. 외국에서는 Иванов-Разумник,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мысли* том 2 (St-Петербург, 1911) 같은 고전급 문헌, Козьмин, Б. П., *Из истории революционной мысли в России.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1961) 같은 정평 있는 문헌을 비롯하여 수많은 연구가 쌓여 있다. 서양의 연구서로 가장 널리 권위를 인정받은 책은 Venturi, F.,

세대 경험과 윗세대와의 갈등은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사회사적 연구의 대상이지만, 특히 혁명운동 및 혁명사상사의 전개과정에서 이들이 혁명적 분위기의 전파와 고양에 기여한 방식 혹은 정도와 관련해서도 러시아에서나 외국에서나 많은 주목을 끌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1860년대 세대와 1840년대 세대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세대간 대립을 서술한 후 이 대립을 지식인들의 계급적 출신성분의 차로 설명하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860년대 세대는 과연 단일한 세대였을까? 만하임은 동일한 경험을 한 세대 내에서도 분화가 가능함을 인지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동일한 역사적인 구체적 문제들을 경험하는 청년들은 동일한 실제적 세대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자신들의 공통된 경험의 자료들을 다른 특정한 방식으로 다듬어서 작업해내는 집단들은 별개의 세대단위를 구성한다”(Mannheim, K. 1952, 2007: 304). 그런가 하면 프랑스의 1968년 학생운동 집단의 구성에서 보듯, 알제리 독립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참여하였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선행한 구체적 경험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던 두 집단이 1968년 운동이라는 큰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후 하나의 세대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Bertaux; Linhart; le Wita 1988: 76-77). 나뉘어 있던 집단이 하나의 큰 집단으로 합류하는 경우이다.

이 글은 세대적 분화의 좀 더 복합적인 지층과 단면들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 즉 아들 세대인 1860년대 세대가 아버지 세대인 1840년대 세대와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그것이 러시아 사회에 어떤 변화의 파장을 미쳤는지 기본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다 더 나아가서 계급과 세대라는 큰 틀 내에서 나타나는 교차와 분화의 다양한 양상들을 짚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어떠한 사회

---

*Il Populismo Russo* (Torino, Einaudi, 1952)일 것이다(영역본 제목은 *Roots of Revolution: A History of the Populist and Socialist Movements in Nineteenth Century Russia*). 최근의 연구로는 Pozefsky, P. C., *The Nihilist Imagination: Dmitrii Pisarev and the Cultural Origins of Russian Radicalism (1860-1868)* (New York: Peter Lang, 2003); Abbott Gleason, *Young Russia : The Genesis of Russian Radicalism in the 1860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를 들 수 있다.

적 현상도 단일한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으며 마치 생물학적 개체가 다르듯이 각각의 역사적 사회적 현상들도 복합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이 같은 바탕 위에서, 아래에서는 1860년대 세대의 사고와 행동의 특징, 이들의 계급 그리고 1860년대 세대 내부의 분화라는 쟁점에 대해 1860년대 세대의 대표로 칭해지는 인물들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글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논문이라기보다 이미 밝혀진 사실들을 통해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사론(史論)으로 스스로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미리 분명히 해 둘 것은, 이 글에서 1840년대 세대 및 1860년대 세대 등, 세대라는 말을 쓸 때는 그것은 사회 전체의 동년배 집단 전체가 아니라 사실상 지식인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뤼시앵 페브르의 관점을 따를 때 청년 세대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이 소수파 연립집단, 곧 급진적 소수파를 형성하는 "청년"집단인 대학생들 및 그 주변 인물들이다. 러시아역사에서 문제되는 1860년대의 청년세대 또한 주로 도시의 대학생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급진적 문필가 논객들을 포함하는 비판적 지식인 집단, 곧 인텔리겐치야<sup>6)</sup>를 가리킨다. 즉, 1840년대 세대와 1860년대 세대의 대립은 러시아 역사에서 인텔리겐치야 1세대와 2세대의 대립을 뜻하는 것이다.

6) 러시아 인텔리겐치야는 세계사적으로 독특한 위상을 가지는 현상이다. 단순히 지식이 많거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실천의지와 결합시키는 인물들이 인텔리겐치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인텔리겐치야가 일반적으로 지닌 특징을 콩피노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문제들 및 현안들에 대한 깊은 관심; 2) 이들 문제 및 현안들의 상태에 대한 죄의식과 그 해결책에 대한 개인적 책임 의식; 3)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을 도덕적 문제로 보는 경향; 4) 생각이나 삶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궁극적인 논리적 결론을 찾아야 한다는 의무감; 5) 현 상황이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상태에 있지 못하며, 무슨 일인가 마땅히 행해져야 한다는 확신 (Confino, M. 1972: 118).

## 2. 1860년대 세대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1840년대 세대와 1860년대 세대의 갈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이어서 두 세대 사이 논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1862년에 출판된 투르게네프의 소설 『아버지와 아들』(ОТЦЫ И ДЕТИ)이다. 직역하자면 “아버지들과 자녀들”이라 할 수 있을 이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복수형으로 씌어 있어서, 작품이 단순히 어느 개별적인 부자 사이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라는,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음을 말해준다. 1859년 여름 러시아의 어느 지방 귀족의 영지를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에서 투르게네프는 아들 세대의 전형으로 바자로프라는 인물을 설정하고 그가 자신과의 관계 파장 안으로 들어 온 아버지 세대 사람들과 빚는 마찰과 긴장된 분위기를 통해서 두 세대 사이의 갈등을 묘사하였다.

이 소설에서 바자로프는 자연과학과 의학을 전공하는 가난한 평민출신 대학생으로서, 자기 힘으로 힘들게 돈을 벌어 살아가는 청년이다. 그는 방학 중에 귀족 출신인 친구 아르카지 키르사노프의 영지 저택을 방문했다가 아버지 세대인 키르사노프 형제(파벨 페트로비치와 그의 동생 니콜라이)와 논쟁을 벌인다. 바자로프의 주된 공격대상은 귀족주의적이고 오만한 초로의 독신남 파벨이지만 사람 좋고 감상적인 니콜라이도 그의 비판에서 온전히 면제되지는 못한다.

바자로프는 아버지 세대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다. 그는 일체의 기성 권위를 부정하는 인물이고 또 그것을 숨기지 않는다. 그는 주변사람들에게서 허무주의자로 불리고 스스로도 이를 부인하지 않으며 “미래를 위해 터를 깨끗이 닦아야 한다”고 말해 혁명이 필요함을 암시하기도 한다. 속은 공허하지만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파벨 페트로비치는 자기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는 바자로프에게 격분하며 바자로프가 키르사노프네 영지를 떠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끊임없는 긴장의 분위기가 감돈다. 바자로프는 사회문화적 의미의 아버지들인 키르사노프 형제와 불화를 빚을 뿐 아니라 자신의 육친의 아버지들과도 화합하지 못한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지적으로 공통의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바자로프는 뜻밖의 사고로 짧은 일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세상을 철저한 단독자로 살아간다.

이러한 바자로프를 주인공으로 한 『아버지와 아들』은 발표 당시부터 논란에 휩싸였으며, 작가 투르게네프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모두에게서 비난을 받았다. 젊은 세대 급진적 평론가의 하나로 종합문예지 『동시대인』(Современник)지의 편집자 중 하나였던 막심 안토노비치는 1862년 3월 호에 실린 평론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악선전 팸플릿이요 바자로프는 젊은 세대의 풍자화라고 주장하며 분노했다(Pisarev, D. I. 1958: 705). 반면 기성세대의 보수논객이던 카트코프는 바자로프라는 ‘엄청난 힘을 가진 젊은 세대 인물’의 출현에 두려움을 금하지 못하는 한편, 자신들이 젊은 세대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려진 데 격앙했다.<sup>7)</sup> 그 중에서도 젊은 세대는 ‘허무주의자’(нигилист, nihilist)라는 명칭에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이는 젊은 세대 전체가 삶과 사회에 대해 건설적인 태도를 가지지 못한 채 그저 냉소적으로 빈둥거리는 건달인 양 매도하는 말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 지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인물이 피사레프다. 바자로프가 허구적 인물 가운데 1860년대 세대의 상징이라면 피사레프는 현실적으로 존재한 인물 중에서 아들 세대의 아이콘이다(Coquart, A. 1946: 9).

사실 1860년대 인텔리겐치야의 대표로 거의 항상 나란히 칭해지는 인물은 체르느이셰프스키, 도브롤류보프, 그리고 피사레프이다.<sup>8)</sup> 이들 세 문필가는 “60년대의 철학자들”이라 통칭되기도 하였다(Coquart, A. 1946: 9). 나이로 보면

7) 야넨코프는 투르게네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같은 사정을 기술하고 있다(Turgenev, I. 1966: 178).

8) 혁명 전이나 혁명 후이나 이 세 명을 이른바 1860년대 인텔리겐치야의 대표자로 여긴다는 점에서 러시아 지성사 연구자들의 견해는 일치한다(Иванов-Разумник 1911: 1-97; Плоткин, Л. 1962: 3).

게르첸과 오가료프도 중요한 ‘60년대 사람들’의 범주에 넣는 지성사가도 있다(Нифонтов, А., “Предисловие”, Козьмин, Б. П. 1962:10). 그러나 이 두 망명 문필가 겸 혁명가는 이미 1840년대부터 러시아 인텔리겐치야의 논의 지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임을 생각하면 이는 ‘60년대적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60년대 세대의 선구자’라는 뜻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세대로서의 ‘60년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 두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는 편이 더 어울린다.



체르느이셰프스키가 제일 연장자이고 피사레프가 제일 젊다.

니콜라이 체르느이셰프스키(1828-1889)는 1850년대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석사학위 논문 『현실과 예술의 미학적 관계』를 발표하여 크게 주목을 끈 후 『동시대인』지의 중요한 필자로서, 편집자로서 러시아 급진파들의 지도자가 되었다.<sup>9)</sup> 푸쉬킨이 창설한 이래 1840년대에 벨린스키의 주된 활동공간이었고 그 후 네크라소프가 주간을 맡아 이끌어오던 『동시대인』지는 그의 활동으로 차르 정부에 반대하는 러시아 인텔리겐치야의 대변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으며, 심지어는 망명한 게르첸이 런던에서 발간하던 『중』(Колокол)지가 인텔리겐치야 사이에서 차지해 왔던 영향력을 능가할 정도가 되었다(Methvin, E. H. 1973: 182). 체르느이셰프스키는 유물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기성 체제를 비판하며 비판적 지식인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러시아 농민공동체에 바탕을 둔 농민 사회주의 사회의 수립을 지향하는 인민주의 사상을 개진하였다. 1861년의 농노해방의 내용에 대한 그의 비판은 1860년대의 분위기가 뜨거워지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그는 개인적으로도 엄격하고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인 생활방식을 견지했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감화를 미칠 수 있었다.

니콜라이 도브롤류보프(1836-1860)는 체르느이셰프스키와 함께 『동시대인』에서 활동했던 평론가로 귀족계급에 대한 신랄한 비판자의 한 사람이었으며, 이는 그의 평론 『오블로모프스러움이란 무엇인가?』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이른바 잉여인간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곤차로프의 소설 『오블로모프』의 주인공인 오블로모프 속에서 귀족들의 무능하고 게으른 삶의 모습을 보았다.<sup>10)</sup> 그는 러시아 문학에서 오네긴, 페초린, 루딘, 오블로모프로 이어지는 잉여인간의 계보를 추적하면서 이들이 현실과 유리된 관념 속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지적하였는데, 그

9) 체르느이셰프스키의 생애에 대해서는 Wehrlin, W. (1971)을 참조하시오. 체르느이셰프스키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비교적 간명한, 그러나 이념적 편향성이 없지 않은 소개 글로는 Pereira, N. G. O. (1973)도 참조할 수 있다.

10) Добролюбов, Н. А. (1978), *Избранные статьи* 중 “Что такое обломовщина”, сс. 131-170. 오블로모프식 무위도식이 귀족적 생활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임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는 특히 143-145쪽을 참조하시오.

같은 과잉관념성과 우유부단함이란 면에서는 행동이 결여된 채 선진적인 이념이나 사조를 받아들여 말만 앞세울 뿐인 자유주의자들도 오블로모프나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로 여겼다.

드미트리 피사레프(1840-1868)는 세 사람 가운데 가장 젊었으며, 도브롤류보프가 일찍 사망하고 1862년 체르느이프스키조차 투옥되어 정치·사회평론의 최전선에서 현실의 가장 민감하고 절실한 문제들에 개입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 후 급진적 인텔리겐치야 사이에서 짧은 시기 안에 광범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논객이다.<sup>11)</sup> 특히 그는 『동시대인』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지게 된 급진파의 잡지 『러시아의 말』(Русское слово)의 대표 필자였다. 피사레프가 젊은 세대에 미친 영향은 수도권에 그치지 않고 실로 전국적으로 막대한 것이었던 듯, 후일 러시아제국의 재무대신과 재상직을 역임하였던 세르게이 비테도 자서전에서 1860년대에 자기가 다녔던 오데사 고등학교의 학생 대다수가 피사레프, 도브롤류보프, 체르느이셰프스키의 영향 아래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젊은 이들의 우상은 피사레프였다고 회고하였다.<sup>12)</sup>

이러한 피사레프가 아버지와 아들 논쟁의 와중에서 바자로프를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이 발표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씌어진 평론 『바자로프』에서 이 소란스러운 논쟁의 중심인물을 1860년대 젊은이(“우리 젊은 세

11) 소련 시대에 출판된 피사레프 저작선집 편찬자의 평가로는 피사레프는 “1860년대 러시아에서 못별과도 같이 뛰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의 사상은 체르느이셰프스키의 영향을 받았다.” Pisarev, D.(1958), *Selected Philosophical, Social and Political Essays* 중 "D. I. Pisarev's Philosophical, Social and Political Views", c. 5. 소련 시대 출판의 특징적 현상의 일부였을 수 있으나 이 책에는 편찬자 이름도 서론(Introduction) 필자 이름도 따로 소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책의 맨 뒷면 맨 아래쪽 저작권 표시란에 아주 작은 글씨로 ‘편찬자 마르첸코(Марченко)’라고 씌어 있는데, 그가 이 서문의 필자일 수도 있다.

12) 그러나 비테는 그 자신은 군주정 지지자였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Витте, Граф С. Ю. 1960: 68). 비테는 이어서 1875-6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때는 위의 세 사람이 심은 정신이 사회여론에서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발현되었다고 쓰기도 했다(Витте, Граф С. Ю. 1960:101).

대)의 대표로 칭했다.<sup>13)</sup> 그가 보기에 바자로프는 하나의 유형이었다. 그는 바자로프의 거칠고 편협하며 교양 없어 보이는 태도를 그가 처한 힘겨운 삶의 조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바자로프를 이해하면서 그에게 깊은 애정을 보였다. 피사레프가 보기에 바자로프가 낭만적인 몽상을 배격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나날의 끼니를 걱정하며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하면서 백일몽을 꾸는 나른한 감상에 빠져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가 모르는 것은 가차 없이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에 있었다. 시, 음악, 예술이 모두 그러한 범주에 속했거니와, 바자로프에게는 파벨 페트로비치가 그토록 집착하는 구시대의 도덕률도 유유자적한 삶의 산물일 뿐이었다. 바자로프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였고, 삶의 과정 속에서 실제적 현실주의에 이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사레프는 이렇게 썼다. “삶에서 유리된 모든 것, 공허한 구절이 되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반감은 바자로프 유형의 근본적 특징이다.”(Turgenev, I. 1966: 201-202) 고달픈 삶을 사는 바자로프에게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것조차 사치였다. 그는 “자연은 신전이 아니라 작업장이며 인간은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에 비하면 바자로프의 주된 논쟁상대였던 파벨 페트로비치는 페초린의 축소판으로서 (Turgenev, I. 1966: 203) 권태로운 잉여인간일 뿐이었다.

피사레프는 1860년대 평민출신 대학생의 고단한 삶의 처지를 이해했고 이를 견뎌내면서 강인한 인성을 가지게 되는 그들의 심리적 특징을 면밀히 통찰했으며 이를 긍정적이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작품 속에서 바자로프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허무주의자라는 모습을 가지기도 했지만, 피사레프는 바자로프가 대단히 근면하고 강인하며 자기의 연구에 몰두하는 자연과학도라는 것

13) Turgenev, I. (1966), *Fathers and Sons* 중 Pisarev, D. I., “Bazarov”, p. 196. 피사레프는 1865년에 쓴 『사고하는 프롤레타리아』라는 평론에서도 바자로프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되풀이하였다. 그는 투르게네프가 “새로운 사람들”을 그리려고 노력하였는데, 『전야』의 인사로프는 제대로 형상화되지 않은 인물인 데 반해 바자로프는 새로운 유형의 빛나는 대표로 그려졌다고 평하였다(Pisarev, D. I. 1958: 629).

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리하여 바자로프에게 붙여진 ‘허무주의자’라는 명칭은 피사레프에 이르러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

사실 허무주의라는 이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무’(無)를 의미하는 라틴어 ‘니힐’(nihil)에서 유래한 니힐리즘은 기존의 권위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바쿠닌이 말하는 파괴를 향한 정열과도 상통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1860년대 세대가 표방한 허무주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열망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체르느이셰프스키도 그러했지만 피사레프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유용성과 민중의 상태 개선이었다. 러시아에서 1860년대 인텔리겐치야는 기존권위의 파괴와 민중을 위한 헌신을 같은 기반 위에 놓고자 하는 최초의 세대였다. 민중의 복리를 실현하는 길을 모색하는 데서 이들은 지적으로 1840년대 세대와 다른 기반에서 있었다. 이들과는 소위 세계관이 달랐던 것이다 (Coquart, A 1946: 10). 피사레프는 철학을 공격하는 대신 바자로프와 마찬가지로 자연과학을 숭상하였는데, 그것은 ‘공허하고 관념적인’ 철학에 비해 자연과학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유용한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피사레프가 몰레쇼트, 포르트, 뷔히너 등 독일 유물론자들의 유물론과 경험주의를 자기 사고의 기반으로 삼으면서<sup>14)</sup> 예술과 학문에 대해서도 공리주의적 태도를 취한 것은 농노를 소유한 귀족들의 낭만적인 시와 철학이야말로 그저 사회적 기능을 가지지 않는 유한계급의 음풍농월에 불과하다고 보는 급진주의자들의 태도의 반영이었다. 그는 민중이 빈곤과 부자유에 신음하는 현실을 눈앞에 두고 한가하게 개인의 낭만적 감정을 표현하면서 유유자적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당장 이를 개선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피사레프의 말을 빌리면 사고하는 “현실주의자”의 태도였다(Писарев, Д. И. 1956). 그의 생각에는 당대의 러시아 현실에 대한 혐오와 서구사조에 대한 경도가 섞여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당시로서는 최첨단인 1860년대 서구, 특히 독일에서 유행하던 사조를 시차 없이 수용하여 이론적 기반으로 삼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안을

14) 피사레프는 1861-2년 사이에 이들 세 문필가의 이론을 소개하거나 요약한 글을 『러시아의 말』에 잇따라 발표하였다(Coquart, A 1946: 102-105).

현실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자 하는 초조한 심리의 소산이었을 것이다.

피사레프는 그 자신의 지식과 삶이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쓰이기를 희망했고 이를 가로막는 사회체제를 혐오했다. 바자로프에 대한 그의 동일시는 기존체제에 대한 이 반감과 아울러 새로운 사조의 선구적 수용자로서 느끼는 엘리트적 동질감에 기인하는 바도 컸다.

그런데 1860년대의 대표적 지식인 피사레프에게서 이처럼 옹호 받았다고는 하지만 바자로프는 작품 속에 묘사된 아들세대의 한 유형일 뿐이다. 바자로프는 행동적 인물은 아니다. 그는 권위에 대해 냉소적일 뿐 실험실에 틀어박혀 개구리 해부에만 몰두하는 한 정치사회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는 모든 권위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과격하지만 행동과 관련해서는 햄릿과도 같은 가장 관념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만으로는 현실적인 정치사회 운동에서 파괴력을 가지지 못한다. 작가 투르게네프가 그를 갑자기 병에 걸려 죽게 만들었던 것도 계속되는 그의 삶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무의미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사회적으로 급진적인 청년세대로서의 1860년대 세대라는 개념에 바자로프보다 훨씬 더 잘 부합하고 그보다 더 강력한 실천성을 가진 인물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Что делать?)의 등장인물들이다.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서”(Из рассказов о новых людях)라는 부제 자체가 말해 주듯 체르느이 세프스키의 이 장편소설은 작가의 관점에서 바람직하게 보이는 새로운 유형의 청년남녀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다.

이 작품의 여주인공 베라 파블로브나와 그녀를 둘러싼 두 남성은 가부장제 가족의 파괴를 위한 대담한 행동과 기층노동자들을 위한 공동체,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실험하는 대담한 실천적 의지와 능력을 과시한다. 더구나 베라 파블로브나는 억압적인 부모 아래 고통을 겪다가 가짜 결혼을 통해 부모의 수중에서 벗어나고 자아실현의 길에 들어가는데, 부모세대에 도전하는 자식세대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볼 때 단지 대화에서만 아버지 세대와 맞설 뿐인 바자로프보다 베라 파블로브나와 그 주변 남자들이 훨씬 더 적극적인 행동주의자들이다.

그런데 베라 파블로브나와 로푸호프, 키르사노프는 사회적으로는 큰 변화를

예견케 하는 대담한 행동들을 취하지만 작품 속에는 이들의 정치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급진적이고, 장차 러시아에서 곧 익숙한 모습이 될 직업혁명가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은 라흐메토프다. 그는 혁명활동에 헌신하여 철저하게 금욕적이고 규율적인 삶을 살며 혁명활동에서 맞이할 지도 모르는 어떠한 고난에도 대비하기 위해 꼬박꼬박 혹독한 신체적 단련 프로그램까지 실행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라흐메토프에 비하면 바자로프는 물론 베라 파블로브나와 주변 사람들까지도 특이할지는 모르나 체제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선량하고 건실한 젊은 이들처럼 보일 정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존 체제에 대한 내적 태도이다. 바자로프는 체제에 도전할 사이도 없이 사망해버렸지만 베리 파블로브나와 주변 사람들은 라흐메토프가 혁명의 깃발을 들고 일어날 때 적극적 동조자가 될 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일컬어 허무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기존체제와 그 체제 내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철저한 부정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베라 파블로브나와 그녀 주위의 젊은 남녀들도, 라흐메토프도 모두, 바자로프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들’에 맞서는 ‘자녀들’인 것이다.

젊은 인텔리겐치야, “아들들”도 물론 사회적으로 인정(認定)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인정의 체계는 기존체제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급진주의 운동의 테두리 안에 있었다. 즉 인정의 기준이 달랐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위문화를 형성하였다. 기존체제의 밖 혹은 지하에 형성된 인정 체계 내에서 나름대로의 인정을 받으면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러시아 사회는 이미 복수(複數)의 가치체계 및 인정체계를 가진 사회, 균열된 사회였다.

“우리는 허무주의자요. 어찌시겠소.”라고 말하는 젊은 세대를 제어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었다. 피사레프를 비롯한 급진적 문필가들이 길을 열어놓자 젊은 학생, 지식인들의 하위문화는 자체의 동력을 가지고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급진화된 ‘아들들’의 문화 속에서 트카초프나 네차예프와 같은 직업적 혁명가가 출현하였다. 1860년대 말에 저질러진 네차예프의 동료살해는 “혁명정신에 투철

한 혁명가”라는 평판이 적어도 일각에서는 명예스러운 것, 존중받아야 할 어떤 것으로 여겨지고 있던 그러한 사회에서 서슴없이 저질러질 수 있었다.<sup>15)</sup> 그런 한편 네차예프식 극단주의와는 다른 형태의 급진적 청년운동도 전개되었는데 그것이 브나로드 운동이었다. 1874년의 브나로드 운동은 1860년대를 통해 ‘의식화된’ 젊은 지식인들이 1860년대 말 이후 라브로프의 영향과 바쿠닌주의의 영향 아래서 게르첸과 체르느이세프스키의 인민주의를 실현하려는 운동이었다.

### 3. 아버지-아들 세대의 역사사회적 경험과 아들 세대의 세대의식

같은 정치적, 문화적 세대는 같은 경험을 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을 공유했다는 의식도 공유한다(Bertaux; Linhart; le Wita 1988: 76). 이를 세대의식이라 부를 수 있다. 세대 의식은 세대 정체성의 바탕을 이룬다. 피사레프는 그의 바자로프론을 통해 1860년대 지식인들의 세대의식을 스스로 표현한, 세대 정체성의 전도사였다.

그런데 1860년대 세대의 주도적 지식인들은 1840년대 세대의 자녀 세대에 속했을 뿐 아니라 생물학적 의미에서도 문자 그대로 젊은이들이었다. 비교적 연장자였던 체르느이세프스키만 해도 서른 네 살에 체포되어 투옥된 후 오랫동안 공공 앞에서 활동을 하지 못했다. 도브롤류보프는 이십 대초반의 나이에 『동시대인』지를 주무대로 삼아 러시아 평단을 쥐락펴락하며 활동하다 스물 네 살의 나이에 사망하였다. 피사레프가 평론 “바자로프”를 쓴 것은 스물두 살 때였고, 차르 정부에 체포되어 투옥되었다가 석방된 후 얼마 안 있어 사망했을 때 그의 나이는 스물여덟 살이었다. 『러시아의 말』지에서 그와 함께 활약했던 바르폴로메이 자이체프는 피사레프보다도 두 살이나 더 젊었다.

러시아의 1860년대는 젊은이들끼리 위계적 구분 없이 서로 교육하고 교육받으면서 선대에 의존하지 않고 사고와 행동의 독자적 틀을 만들어 가던 시기, 현

15) 폼페는 네차예프 평전에서 1860년대 말 1870년대 초 유럽 혁명운동가 사회를 휘저어 놓았던 이 젊은 러시아인의 특이한 행적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폼페, 필립 2006).

실과 문필활동과 의식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던 시기였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는 팽배해 있는 사회적 모순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며 오직 자신들만이 사회를 온전히 재구성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사회를 재구성하려는 의지에 충만해 있었다. 이것이 그 이전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리고 그 이후의 격변기 사회에서는 종종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저항적 세대’의 모델이 된 한 특별한 세대의 출현을 가져왔다.

1860년대 인텔리겐치야의 특징은 단순히 보수반동 세력을 비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온건한 개혁파나 자유주의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오히려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에 더 주력하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도브롤류보프의 『오블로모프스리움이란 무엇인가』에서도 드러나듯, 그들은 온건 자유주의자들은 행동이 결여된 채 어디서 들은 관념이나 사조를 유행처럼 늘어놓는 말뿐인 사람들이라 여겼다. 그들의 급진성은 온건함, 자유주의적인 것에 대한 반감과 경멸을 특징으로 하였고, 이것이 1840년대 지식인들에 대한 그들의 비판적 태도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피사레프는 그의 개인적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짧은 글 『세도-페로티의 팸플릿』에서 자유주의자들을 이렇게 비웃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유주의자라고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인쇄된 글을 통해 어떤 의견을 표명하거나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그들을 체포하거나 오지로 유배 보낸다면 그것은 어찌 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전적으로 자유주의자들로 구성된 우리 정부는 이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sup>16)</sup>는 미하일로프나 파블로프를 유배 보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정말이다. 그는 그들을 유배 보냈지만, 갑소사, 이 일은 그의 섬세한 심성에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던가. 그들은 대학생 레베데프의 두개골을 박살냈지만<sup>17)</sup> 정부는 당장 이 일 때

16) 알렉산드르 2세 황제를 가리킨다.

17) 피사레프와 동년배인 페테르부르크 대학생 블라디미르 레베데프는 1861년 대학생 시위에 참여했는데, 시위 학생 체포에 참여했던 한 군인이 그의 후두부를 총의 개머리판으로



문에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신문에 이에 대한 해명을 실었다. 말인즉슨, 헌병들은 검을 휘두르긴 했지만 의도하지는 않은 채 어쩌다보니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Pisarev, D. I. 1958: 140)

도브롤류보프도 피사레프도 자유주의자들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위선적인 인간들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말뿐 아니라 실제 삶의 태도에서도 부당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부정할 것을 요구했다. 냉정하고 거칠어 보이는 그들의 태도는 여기에서 비롯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역사적 경험이 이와 같이 급진적인 인텔리겐치야의 출현을 가져왔을까? 그것은 그들이 삶에 대한 태도를 막 형성해가고 있던 청년시기에 자유주의적 개혁의 한계를 목격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기대를 버렸다는 것과 관련된다.

1860년대 세대는 생물학적 연령에서뿐 아니라 성장 시기에 몸과 뇌리에 각인된 역사적 사회적 경험에서 1840년대 세대와 달랐다. 1840년대 지식인들은 나폴레옹 전쟁 승리 이후 고조된 애국심과 전제체제의 폐쇄성과 완고성이라는 벽 앞에서 온건한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1825년 데카브리스트 봉기의 진압은 전제체제가 난공불락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1840년대 지식인들은 데카브리스트 봉기에 대해 대개는 직접 경험이 아니라 전언을 통해 들었을 뿐이고 그들이 성장해서 문필활동을 하던 시기에는 이미 니콜라이 1세의 반동정책이 확고하게 시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일체의 저항을 허용치 않는 절대권력의 철옹성 앞에서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동력을 얻지 못했으며, 개혁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성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사고와 행동 모두 일정한 한계 안에 갇혀 있었다. 바자로프가 냉소적으로 대했던 아버지 세대 키르사노프 형제 가운데 동생 니콜라이는 농노들의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부역을 현물지대화하였던 것에서 보듯 개혁적 성향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신분제 사회 체제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특권계급을 유지하되 특권계급이 온정주의적 개혁을 선도함으로써 하층민들의 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

갈겨 충상을 입혔다.

이어서, 기존 사회체제 전체의 전면적 부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반면 1860년대 세대는 10대 소년시절 혹은 20대에 차르 니콜라이 1세 정부의 반동정책에 뒤이은 크림전쟁 패배와 1861년의 대개혁에 따른 농노해방이라는 격변을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농노해방의 내용에 실망한 농민과 지식인들의 격한 반응에도 접하였다. 크림 전쟁은 러시아 제국이 대내외적으로 무적의 세력이 아니라 대단히 허약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전제 정부는 가장 시급한 개혁조치로 농노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약속하였다. 격렬한 기대와 희망의 몇 년이 지난 끝에 알렉산드르 2세 황제가 서명한 농노해방선언이 발표되었다. 농노해방은 그 자체로서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었지만, 농민에게 충분한 토지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부담을 과하는 것이란 점에서 민중의 삶의 근본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던 인텔리겐치아의 실망은 엄청나게 컸다.<sup>18)</sup> 1860년대 세대는 구소련 역사학계에서 “혁명적 상황”(Революционная ситуация)이라 불린<sup>19)</sup> 엄청난 사회적 격동과 기대, 좌절의 상황을 청소년기에 경험하였다.

농노해방 후 거의 2년 동안 러시아 제국을 뒤덮은 농민들 자신의 봉기는 지식인들의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체르느이세프스키와 같이 이미 문단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지식인들에게서 비롯된 농노해방에 대한 격한 비판에 이어 젊은 대학생들의 항의시위가 잇따랐다. 1861년 가을에는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의 대학생들이 큰 규모의 반정부 가두시위를 벌였고 정부는 그 대응으로 수백 명의 학생을 체포하여 수감하였다.<sup>20)</sup> 게르첸이 망명지 런던에서 발간하는

18) 농노해방에 대해 이와는 대조적인 반응도 있었음은 물론 인정해야 한다. 이반 투르게네프의 『사냥꾼의 수기』 가운데 한 편인 『푸닌과 바부린』에서 아르메니아 출신 평민이자 정치범이었던 바부린은 농노해방 선언문을 입수하여 읽고는 “만세 만세. 신이여 황제를 보우하시어.”라고 외치며 열광하였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악천후를 뚫고 밖으로 나갔으며, 이로 인해 병을 얻고 죽는다. 이 부분만을 읽는다면 농노해방에 대한 러시아 제국 주민들의 반응이 열광적이어서 그야말로 황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이었다고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이 반응은 어디까지나 자유주의적이고 온건한 귀족이었던 작가 투르게네프의 태도를 반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단행본으로는 Нечкина, М. В. 1978을 참조하시오.

『중』에서 “세번째 유희”이라는 글을 쓴 것도 이 사태에 대한 것이었다.

정부는 자유주의적 개혁을 표방하면서도 학생운동을 비롯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인텔리겐치야의 활동을 가차없이 탄압하였다. 미하일로프, 오브루체프, 체르느이셰프스키 등 수많은 문필가들이 그들의 글 때문에 투옥당하고 유배되었다.<sup>21)</sup> 그러나 그 탄압은 결코 효과적이지 않았다. 즉 정부의 어떤 조치도 젊은 이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데 성공적이지 않았다.

정부와 젊은 인텔리겐치야의 대립은 격화되었다. 감수성 예민한 연령대에 있던 젊은 급진주의자들은 기성세대의 권력이 전능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도전에 대처하는 기성세대의 대응방식도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그리고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저항이 기존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 같은 경험은 기존권위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패한 권력(정부)에 가장 위험한 순간은 그 권력(정부)이 개혁을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한 토크빌의 분석(토크빌, 알렉시스 드 2006: 196)이 이 상황에도 아주 잘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던 억압적 상황보다 고조되었던 기대가 좌절감으로 바뀌는 순간이 인간의 정치사회적 의식에는 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더 영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체제로부터의 이반을 불러일으킨다. 농노해방을 추진한 자유주의적 개혁세력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가 실망한 이들은 자유주의적 개혁은 기만적이고 인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이 결정적인 경험이 그들에게서 온건한 개혁에 대한 일체의 기대를 버리게 만든 것이다. 역사적 경험은 영혼에 각인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체제 이반 현상은 계급의 장벽을 가로질러 파급되었고, 비록 수적 차이는 있으나 급진주의자는 모든 계급에서 출현하였다. 평민출신인 체르느이셰프스키는 농노해방의 결과를 인내심 있게 기다렸으나 그 결과에 실망하자 급진주의적인 자세를 현격하게 강화하게 되었고 결국 옥중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 농노해방 후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Venturi, F. 1960: 220-231을 참조하시오.

21) 이 시기 지식인들의 저항과 차르 정부의 탄압에 대해서는 Нечкина, М. В. 1978: 252-290을 참조하시오.

를 쓰기에 이르렀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사레프는 귀족 가문 출신의 젊은이로서 사회정의의 이상에 불타 농노해방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한 그가 농노해방의 구체적인 내용을 접했을 때 그는 극심한 실망에 사로잡혔고 그 자신의 가족을 지배하였던 차르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결정적으로 결별하게 되었다. (Плюткин, Л. 1962: 18) 또한 농노의 아들이었던 네차예프는 사회체제란 변화하는 것이고 이 같은 변화에 의해 한 사람의 신분이 예속민에서 자유민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것을 바로 자기 가족의 신분변화를 통해 개인적으로 경험한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 4. 아버지-아들 세대의 갈등과 계급 차

1840년대 세대 지식인과 1860년대 세대의 주도적 인물들의 출신 계급의 차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혁명기 혹은 사회적 격변기에 출신계급이 청년세대의 정치적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론적 관점에서 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그 같은 일반화는 계급이 청년세대의 행동을 규정한다는 것인데, 실제연구에서 그 결정력에 대한 설명은 정반대로 진행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하층계급 출신의 젊은이들이 급진적인 정치 성향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다른 학자들은 부유한 계급 출신이 그렇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루츠는 1848년 혁명기 비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당시 비인 대학 학생들 가운데 (다수는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지방 상점주인이나 수공업자의 아들 같은 하층계급 출신이었고 이와 같은 하층계급 출신 지식인들이 정치적으로 비인의 대중을 이끈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고 주장하였다.<sup>22)</sup> 즉 그는 가난한 학생일수록 더 전투적이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반면 학생운동이 대규모로 전개되었던 1960년대 미국과 서유럽에서 급진적이고 전투적인 정치적 태도를 보인 청년 대학생들은 하층계급 출신보다 오히려

22) Lutz, R. R. Jr. (1962) “Fathers and Sons in the Vienna Revolution of 1848,” *Journal of Central European Affairs*, 12: p. 167(Spitzer, A 1973: 1368에서 재인용).

중상층 계급 출신이었다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Braungart, R. G. 1971: 111; Dunlap, R. 1970: 171-172; Sherkat & Blocker 1994: 822, 824).<sup>23)</sup> 라커(Walter Laqueur)는 청년들의 정치적 저항은 경제적인 풍요의 증대를 배경으로 하여 일어난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Foner, A. 1974: 187).

따라서 권위에 대한 젊은 세대의 도전이 어떤 계급적 중핵을 중심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화를 위해 좀더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혹은 모든 경우에 틀림없이 적용되는 포괄적인 일반이론을 성급하게 찾으려 하는 대신 각각의 경우마다 상황연관적인 의미를 가지는 구체적인 설명틀을 찾아내고자 노력해야 하는 지도 모른다. 젊은 시절의 역사적 사회적 경험이 같은 세대 젊은층에 공통된 정치적 성향을 각인시킨다는 만하임의 말이 유효하다고 한다면 정치적 격변기 젊은층의 정치적 성향을 좌우하는 데는 출신 계급 자체가 유일하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닐 수도 있다.

전통적인 설명에서 1860년대 러시아 세대의 급진화는 대학개혁 이후 이른바 라즈노친츠이(разночинцы)라 불리는 평민 출신 대학생의 수가 급증한 것과 관련짓는 경향이 있다.<sup>24)</sup> 라즈노친츠이라는 말은 원래 러시아 제국의 관등을 의미하는 “친”(чин)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었고,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잡다한 관등 보유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 최초로 문서에 등장한 것은 1720년 원로원(Сенат)의 입법문서에서였으며, 그 후 몇 차례 의미변화를 겪었다(Becker, C. 1959). 19세기 초에 들면서 이 말은 하급 관료들 및 비세습(당대한) 귀족의 자녀들을 가리켰는데<sup>25)</sup>, 상층귀족으로의 진입장벽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23) 플렉스나 리퍼 같은 연구자들은 학생운동 참여자들의 가정적 배경과 관련하여 경제 수준보다 부모의 정치적 의견, 자유로운 분위기의 존재여부 등을 중시하였다. 그들은 1960년대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젊은이들은 오히려 대개 자유로운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라났고 부모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Riffer, R. L. 1972: 562, 564).

24) 이 같은 해석은 러시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영어권 학자들도 이 같은 설명을 오랫동안 대체로 받아 들여왔다(Pereira, N. G. O. 1973: 265).

말은 ‘그리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 ‘특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함의를 풍기게 되었다(Becker, C. 1959:66). “친”이라는 말이 애초부터 농노는 배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즈노친츠이는 특권귀족도 농노도 아닌 일반인, 평민을 가리키는 말이 된 것이다.

러시아 지성사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의미로서 라즈노친츠이의 용법은 인민주의자인 미하일로프스키에서 비롯되어 확산되었으며 레닌 또한 그 용법을 공고화하는 데 기여하였다(Becker, C. 1959: 63). 이는 “귀족에 속하지 않으며 성직자, 관리, 소시민, 농민 출신인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시민계급 인텔리겐치야”를 의미하였다(우샤코프의 정의). 베커의 연구로는 1860년대 급진파 지식인들은 스스로 라즈노친츠이 출신으로 자처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평민”, “새로운 사람들”, “생각하는 프롤레타리아”, “아들들”로 칭했다. 그런데 1874년 미하일로프스키가 이들에게 라즈노친츠이라는 명칭을 붙였고 그 후 이 용어가 확산되었다. 1860년대 급진파 지식인들을 라즈노친츠이 출신이라 부르는 것은 주로 미하일로프스키와 레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5)</sup> 여기에서 급진적 지식인들의 민주주의적 성격과 평민적, 비특권적 사회출신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1860년대 이후 활약한 급진적 지식인들 가운데 비귀족 출신의 비율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늘어났다. 그런데 급진파 지식인들 가운데 평민출신이 늘어났다는 것과 이것이 1860년대 세대의 계급적 출신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다른 문제다. 일찍이 브라우어는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지식인들 사이에 출신계급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케 하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즉 그는 1840년대 대표적인 급진파 서클인 페트라세프스키 서클에 속했던 지식인들과 농노해방 직후 급진적 학생운동의 본거지였던 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1861년 반정부 시위와 관련하여 체포된 급진파 학생

25) 1800년에 ‘파산에 관한 규정집’은 라즈노친츠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상인신분으로 등록되지 않은 하급의 법관, 문민관, 군인 등(Becker, C. 1959: 65).

26) 이인호 교수가 잡계급(raznochintsy)을 보는 시각은 대체로 이 규정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이인호 1980:87).

들의 출신가문을 비교분석하였는데, 그가 보기에 이들 가운데 다수는 몰락하거나 가난에 고통 받는 계층 출신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승하는 집안 출신이었다.(Brower, D. R. 1969: 333-355)

예컨대 1860년대 지식인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니콜라이 체르느이셰프스키는 시골 성직자 집안 출신인 것이 분명하지만, 브라우어의 평가로는 그의 부친은 선대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승한 인물이었다. 피사레프도 비록 서서히 몰락해가는 중이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농노 300명 이상을 소유한 귀족집안 출신이었다. 1860년대 초에 급진적 학생운동의 주역이 될 대학생은 1850년대 말~1860년대 초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이들 가운데 라즈노친츠이(이때는 귀족이 아닌 중소관등계층이라는 의미)출신은 브라우어의 연구대상 가운데 27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급진파 지식인 다수는 오히려 관료를 비롯한 복무귀족 집안 출신이었다. 복무귀족들은 그들 자신이 대개 지식과 교육을 통해 신분적으로 상승한 인물들이며, 교육의 중요성을 스스로 절감하기에 아들들의 교육에도 열성적이어서 기꺼이 대학에 진학시킨 사람들이었다. 브라우어의 연구결과로는 이렇게 하여 대학에 진학한 복무귀족 아들들이 선진사상에 접하면서 급진적이 되었다. 그래서 브라우어는 아들 세대 지식인의 급진화는 사회적 상승 움직임의 결과이자 근대화 과정의 불가피한 일부였다고 해석하기도 한다(Brower, D. R. 1969: 355).

실제로 급진파 지식인의 다수는 여전히 귀족 출신이었다. 당장 체르느이셰프스키의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만 하더라도 직업혁명가의 길을 걸으면서 기존 세계와 가장 급진적이고 과격한 방식으로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 가장 급격하게 변화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인물로 설정된 것은 바로 명문귀족출신이자 농노 400명 이상을 소유한 부자인 라흐메토프이다.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도 1860년대 이후 대학에 다닌 귀족 출신 지식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직업혁명가의 길에 들어섰다. 무정부주의자 크로포트킨은 공작이었고 소피아 페로프스카야는 러시아 제국의 최고명문 중 하나였던 귀족 집안(아버지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지사, 할아버지는 크림 지사, 증조할아버지는 우크라이나 전체의 최고지도자인 헤트만) 출신이었으며, 알렉산드르 3세의 암살을 모의하다

체포되어 처형당한 알렉산드르 울랴노프와 그의 동생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은 귀족작위를 가진 교육관리의 아들들이었다.

그러나 대학 내에 평민출신이 많아졌다는 것이 1860년대 지식인들의 급진화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격동적 상황에서 비 귀족출신 청년들의 행동방식이 귀족출신 학생들의 행동방식까지 좀 더 급진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브라우어의 연구는 급진파 지식인들의 사회적 출신을 비교분석하는 데는 중요하지만 그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즉 그는 1840년대와 1860년대의 급진파 지식인들의 사회적 출신을 분석하였지, 1840년대 세대의 전형인 온건파 혹은 보수적 지식인들의 계급적 특징을 지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60년대 급진파들이 주로 비판하였고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에서도 아들 세대 지식인 바자로프의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페트라세프스키 그룹과 같은 급진적 지식인 집단이 아니라 높은 교양수준을 갖추었으며 사회에 대해 관조적·관망적 태도를 지니거나 보수적 태도를 지닌 귀족 출신이었고, 이들은 주로 중상층 이상의 귀족 출신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브림도 지적했듯 브라우어의 통계는 법적 신분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그가 말하는 귀족 출신 급진주의자의 범주 속에는 몰락한 귀족들, 즉 실질적 라즈노친츠이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Brym, R. J. 1977: 356).

지식인들의 급진화는 세대의 차이가 출신계급의 차이와 맞물리면서 일어났다. 세습귀족가문 출신인 50대 후반의 미하일 바쿠닌은 망명지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해방농노의 아들인 20대 전반의 네차예프와 나란히 국제혁명을 선동하는 문서들을 생산해 냈다. 그러나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쿠닌이 아니라 네차예프였으며, 국제혁명운동의 백전노장이었던 바쿠닌의 급진성은 하루 아침에 등장한 야심만만한 젊은이 네차예프가 혁명운동 방법론과 관련하여 보여주었던 이상파괴적 과격함에 비길 바 아니었다. 네차예프는 연령으로나 출신계급으로나 명성이나 영향력이라는 면에서조차 “있을 것 없는 집단 출신”으로서 혁명운동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거리낌 없이 구사하려 드는 대담함을 보였던 것이다.



## 5. 1860년대 세대 내부 분화의 모습들

1860년대 초 러시아는 “혁명적 상황”이라 불리는 격동적 분위기의 현상이었다. 1860년대 인텔리겐치야는 이 분위기의 산물이기도 했고 그들 자신이 대학생 시위, 급진적 내용의 문필활동으로 정치적 긴장의 고조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일정한 시대적 산물이면서 또한 시대적 변화의 한 동인이기도 했다. 혁명적 상황 자체는 1863년 이후로는 일단 진정되었으나 가장 민감한 청년기에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그 기억을 몸과 뇌리와 영혼에 새겨 넣은 1860년대 세대의 지적 경향은 결코 누그러지지 않았다. 세대간 갈등과 대립은 그 후로도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고조되었다.

그런데 1860년대 지식인들이 선대에 반항하고 일체의 기존권위를 부인하려 들었다고 할지라도 현실과 삶에 대한 그들의 대응방식이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즉 그들은 완전히 동질적인 집단이었던 것은 아니다. 문학적·문화적 세대와 정치적·사회적 세대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Spitzer, A. 1973: 1355). 기성세대와는 구분되는 세계관적 단절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했을지라도, 문학적·문화적 의미의 1860년대 세대의 대표자로서의 피사레프가 옹호했던 바자로프와 좀더 엄밀한 정치적 의미의 1860년대 세대의 대표자로서의 체르느이세프스키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달랐고, 그들을 추종하던 현실 세계 속 러시아 청년 세대의 행동방식도 달랐다.

피사레프는 허무주의자라 불린 바자로프를 자기 세대의 대표자로서 옹호했고 사회 문화적 의미에서 기성세대에도 도전했다. 그는 차르 체제에 충실한 비밀경찰 요원 세도-페로티(피르크스 남작의 필명)의 정치적 견해를 혹독하게 비판한 짧은 글 「세도-페로티의 팸플릿」에서 전제정의 타도를 주장했다가 (Pisarev, D. I. 1958: 145) 감옥에 갇혀 4년간이나 복역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주된 관심은 개인의 해방이었지 사회 체제의 변화를 위한 포괄적 청사진을 만드는 데 있지 않았다. 그가 열성적으로 옹호한 바자로프는 일찍 죽음을 맞이했지만 실험실에서 개구리 해부를 비롯한 자연과학적 실험에 몰두하던 그의 동료들은 실증주

의적인 전문기술관료층의 공급원이 되고 끝내는 체제에 흡수되었을 수도 있다.

반면 체르느이셰프스키와 그의 추종자들은 엄밀한 의미의 혁명운동의 길로 나섰다. 그의 소설 『무엇을 할 것인가』는 혁명운동세력의 전범이 되었다. 이들은 자기네 아들 세대 혹은 손자 세대 혁명가들과도 공통된 행동방식을 가졌다. 1870년생인 레닌이 형 알렉산드르의 처형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읽고 세계관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고 혁명적 활동에 투신한 것은 그 한 예다.<sup>27)</sup>

1860년대 급진파 지식인들 내부의 이견은 세인의 이목을 끄는 상당히 떠들썩한 논쟁을 낳았다. 그것은 『러시아의 말』지와 『동시대인』지 편집진 사이의 한 치 양보도 없는 논전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서로 주고받은 비판과 비난의 언사들은 보수파와 급진파 사이의 그것에 못지않았다.

논쟁은 1863년부터 일기 시작하였으며 가장 치열한 논전이 벌어진 것은 1864년에서 1865년 사이였다. 사실 이 시기는 러시아 제국에서 1861-1863년 만큼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은 아니었다. 1861년 농노해방령의 반포 이후 그 내용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이 일으켰던 봉기는 이 무렵에는 소강상태에 들어가 있었다. 또한 1863년 러시아 제국 지배에 저항하는 폴란드인들이 일으킨 1월 봉기도 러시아 제국정부의 가혹한 유혈진압의 대상이 되어 연말경에는 거의 가라앉아 있었다(Козьмин, В. П. 1961: 22). 따라서 급진세력에게는 차르정부라는 공통의 적이 있기는 했지만 눈앞에서 당장 전투가 벌어지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격의 화살은 뜻밖에도 바로 전까지만 해도 가까운 전우였던, 급진세력 내 다른 인사들을 향하게 된 것이다.

논쟁의 발단이 된 것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죽음의 집의 기록』에 대해 『동시대인』지의 편집인 중 하나였던 살티코프-슈드린이 혹평을 한 일이었다(Pereira, N. G. O. 1975:140).<sup>28)</sup> 도스토예프스키는 1860년대 이후 그의 보수

27) 레닌은 혁명운동을 하던 시절의 동료 발렌티노프에게 이렇게 말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이 책의 영향으로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그 예로 내 형님도 체르느이셰프스키에 사로잡혔고 나 또한 그랬지요.....그는 나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답니다.” (Valentinov 1968: 63-64)

28) 아래 서술에서 양측의 공방의 세부내용은 달리 표시가 없는 경우는 Козьмин, В. П.

적인 사회, 정치사상 때문에 급진파 인텔리겐치야에게서 아주 비판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고 특히 인민주의의 대표적 문필가의 하나인 미하일로프스키의 혹평은 그 이후 소련시대의 도스토예프스키관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sup>29)</sup> 작가 살티코프-슈드린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예술가적 능력은 높이 평가하되 그의 사회사상은 신랄하게 비판하는 논평 노선을 주도한 인물이다(Pachmuss, T. 1962: 61-63). 그런데 도스토예프스키는 1840년대 급진적 지식인들에 대한 차르 정부의 탄압을 상징하는 페트라세프스키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선고를 받기까지 했고 1860년대 초반 해도 일각에서는 주로 그 같은 관점에서 평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 대한 살티코프-슈드린의 혹평은 급진파의 한 세력을 대변하다가 자처하던 『러시아의 말』 편집진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sup>30)</sup>

1863년 4월 『러시아의 말』 편집진에 속했던 자이체프는 살티코프-슈드린이 부지사(副知事)라는 꽤 고위의 관직에 종사했던 것을 암시하면서 그 같은 사람은 피로써 작품을 쓴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작가를 우습게 여길 자격이 없다는 투로 비판했다. 게다가 그는 이해 7월 ‘대중은 거칠고 완고하며 수동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대중을 떠받들지 말 것을 권고하는 글을 씀으로써 게르첸 이래 인민주의적 지식인들의 신념처럼 되어 왔던 민중에 대한 존경에 제동을 걸기도 하였다(Pereira, N. G. O. 1975: 140).

그러자 살티코프-슈드린은 도전을 받아들여 1864년 1월 ‘니힐리스트’들을 맹렬히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였다(Pereira, N. G. O. 1975: 140-141).<sup>31)</sup> 이는

1961 중 “Раскол в нигилистах”와 Pereira, N. G. O. 1975를 주로 참조한 것이다.

29) 미하일로프스키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잔인한 재능”의 소산으로 불렀다(Seduro, V. 1957: 28-38).

30) 『러시아의 말』의 가장 중요한 필자인 피사레프는 1960년대 내내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속의 인물들을 살티코프-슈드린에 비해 훨씬 동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피사레프는 그의 작품 속 인물들(예를 들면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얼핏 병리적으로 보이는 행동은 그들의 광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환경과 가난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그들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Seduro, V. 1957: 21-28).

31) 코즈민은 양측의 논쟁과 관련하여, 자이체프가 살티코프-슈드린을 강하게 비판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살티코프-슈드린이 그야말로 느닷없이 니힐리스트들을 공격하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을 둘러싼 논쟁에서 『러시아의 말』의 피사레프가 아들 세대의 대명사로 받아들였던 “니힐리스트”라는 명칭을 『동시대인』지가 거부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살티코프-쉐드린은 이 글에서 “시간이 지나면”(co временем) 아이들도 어른으로 자라는 법이라고 하면서 피사레프, 자이체프보다 연장자의 입장에서 젊은 그들을 얕잡아보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Козьмин, В. П. 1961: 24). 사실 살티코프-쉐드린은 1860년대 급진적 인텔리겐치야의 중요한 일원이기는 하지만 1826년생으로서 이미 1840년대 말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한 관록있는 작가이기도 했다. 그가 니힐리스트라는 명칭은 1860년대에 활발히 활동하는 정치적 급진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말』을 중심으로 하는 아주 젊은 세대에게만 적용된다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동시대인』과 『러시아의 말』을 차별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은 논의 지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러시아의 말』은 무슨 이유에서든 일단 『동시대인』의 타자로 설정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말』 진영은 격한 반응을 보여, 1864년 2월 자이체프와 피사레프는 각기 살티코프-쉐드린을 맹렬히 공격하는 글을 발표했다. 당시 『세도-페로티팸플릿』 건으로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요새에 수감되어 있던 피사레프는 옥중에서도 문필활동은 여전히 활발하게 계속하던 참이었는데, 그는 『별 볼일 없는 유머의 꽃들』이라는 글에서 살티코프-쉐드린에게 예술활동은 그만두고 대중용 과학 안내서 같은 유용한 글이나 쓰라고 권하였다. 자이체프는 『『동시대인』지에 온 바보마우 주민』이라는 풍자적 제목의 글에서 살티코프-쉐드린을 의리나 원칙이 없는 인간이라고 공격하는 반면 자기 자신을 러시아 청년이라는 좋은 이름의 진정한 수호자라고 자처하였다. 그는 위대한 체르느이셰프스키가 활동한 공간이었던 『동시대인』지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 손에서 더럽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의 저자의 발자취를 따르든지 아니면 그를 비웃든지 해야 할 것이다.”고 권고하기도 하였다.

고 나섰던 양 기술하고 있다. (Козьмин, В. П. 1961: 22-23) 그러나 이 같은 기술은 살티코프-쉐드린이 정치적 소강상태에서 보수화의 물결에 굴복함으로써 니힐리스트들을 공격하고 나선 것처럼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다.

1864년 3월 살틱코프-쉐드린이 반격을 가하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니힐리스트들의 “말 뿐인 태도”를 비난하였으며, “니힐리스트라고 자처하기만 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피사레프를 향해서는 ‘땅에 밀착한 활동을 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의 비판은 청년 세대 전체를 향한 것이 아니며 단지 “별 볼 일 없는 니힐리스트적 헛소리의 별 볼 일 없는 기관지”(『러시아의 말』지를 뜻함-글쓴이)를 추종하는 “귀 늘어지고 똥수 짓 하는” “무서운 아이들(enfants terribles)”<sup>32)</sup>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Козьмин, В. П. 1961: 28, 30).

그 자신이 당시 러시아 사회의 부패상과 우둔함을 통렬한 비판정신으로 풍자하는 작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던 살틱코프-쉐드린은 몇 차례 이들과 거친 말을 주고받으며 논전을 벌이다가 『동시대인』 편집을 그만두고 페테르부르크에서 아예 떠나버렸다. 그러나 『동시대인』지는 푸쉬킨이 창간한 이래 진보세력의 대변자 역할을 해 왔으며 더구나 체르노이세프스키가 이끌어온 잡지라는 점에서 진보적 지식인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 편집자들도 있었다. 안토노비치가 그 중 하나였는데 그는 살틱코프-쉐드린이 떠나간 자리를 곧 이어 받아 『러시아의 말』 편집진을 공격하였다. 안토노비치의 거침없는 논조에 자극 받은 『러시아의 말』 진영이 이에 지지 않고 대응해 옴에 따라 1864년 말에 논쟁은 더욱 격렬한 기세로 재연되었다.

사실 바로 이 국면이야말로 1860년대 인텔리겐치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건의 하나를 낳기도 하였다. 즉 피사레프의 사상을 가장 체계적으로 집약한 『현실주의자들』과 그 속에서 개진된 바자르프론은 안토노비치에 대한 반론이기도 한 것이다(Писарев, Д. И. 1956: 8-69). 다시 점화된 공방전 속에서 『러시아의 말』과 『동시대인』은 러시아 문학의 등장인물들, 1860년대 세대, 서유럽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에 대한 평가, 미국 흑인의 능력 등의 문제를 놓고 마

32) “무서운 아이들”은 피사레프와 그의 동지들을 말한다. 살틱코프-쉐드린은 enfants terribles이라는 프랑스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서구문화에 심취한 피사레프와 그 친구들을 지칭하는 데 이 외래어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치 생사를 건 싸움이라도 벌이는 집단들처럼 독설들을 주고받으며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독자들에게는 이 싸움이 어리둥절하고도 안타까운 것일 뿐이었다(Козьмин, В. П. 1961: 32-33).

『러시아의 말』과 『동시대인』 편집자들의 논전은 이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완전히 비켜서 있던 도스토예프스키의 펜 아래서 “니힐리스트들의 분열”(раскол в нигилистах)이라는 이름을 얻었다.<sup>33)</sup> 그리고 코즈민의 논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sup>34)</sup> 후대의 연구자들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이들의 논쟁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인지 첫 눈에는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논쟁 당시에는 인신공격조의 워낙 거친 말들이 오고갔고 이것이 말꼬리 잡기식 감정싸움으로 번졌던 면도 없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논쟁 자체에서 이들 사이의 노선대립의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사실 당시 보수파가 보기에는 이들은 여전히 일체의 기성가치를 부정하는 허무주의자들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고 보이기도 하였다(Pereira, N.G.O. 1975: 144, 각주 30).

그러나 1860년대 급진주의를 대표하는 두 잡지 편집진의 대립은 공허한 말싸움 혹은 같은 집단 내 주도권 싸움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급진적 아들 세대를 대표하는 두 잡지 편집진의 대립은 당시 그들도 직접 의식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그들 사이에 존재하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두 잡지의 성격을 자기 나름대로 규정하여 『러시아의 말』은 “강경한 니힐리스트들의 기관지”(орган неумеренных нигилистов), 『동시대인』은 “온건한 니힐리스트들의 기관지”(орган умеренных нигилистов)로 부르고 있는데(Достоевский, Ф. М. 1980: 102), 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규정이 전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두 잡지는 일반적인 급진성의 정도라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에서 서로의 길이 같

33) Достоевский, Ф. М. 1980 중 “Господин Щедрин, или раскол в нигилистах (1864),” 102-120.

34) 코즈민은 1860년대 급진파 지식인들의 논쟁을 다룬 연구논문의 제목을 도스토예프스키와 마찬가지로 “니힐리스트들의 분열”이라 붙였다. Козьмин, В. П. 1961 중 “Раскол в нигилистах”, сс.20-67.

라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산업화의 의미, 대중 특히 농민에 대한 평가, 지식인의 역할 등을 둘러싼 이견일 수도 있었고 여기에 두 잡지 편집진의 이른바 출신계층에 따른 계급차도 작용했을 수도 있다.

우선 논전을 주도한 문인들의 평균연령에서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두 잡지 편집진의 연령차는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는 아니고 형제의 차이 정도는 된다. 평균연령에서 『동시대인』이 『러시아의 말』보다 약간 더 높았다. 가장 연령차가 컸던 것은 『동시대인』의 살틱코프-쉐드린과 『러시아의 말』의 자이체프 사이로서, 이들은 열 여섯 살 차이였다. 그러나 연령차가 반드시 급진성의 정도와 비례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두 진영의 논쟁은 방법론과 방향에서 일정한 노선차이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또한 『동시대인』과 『러시아의 말』은 현존 러시아 사회의 전면적이고도 급진적인 변화를 염원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졌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지향하는 목표가 달랐다. 『동시대인』은 러시아의 농촌과 농민사회의 전통에 좀 더 밀착한 논의를 펴면서 산업화를 뛰어넘어 이루어지는 농업사회주의를 지향했다. 이는 체르느이세프스키의 사상을 그대로 잇는 노선이었다. 『동시대인』지는 전체적으로 강렬한 반자본주의적 노선을 견지하였다. 1861년 5월호에 발표된 한 필자의 글은 “현대 경제 사상의 모든 과제는 자본의 멍에에서 노동자를 해방시키는 것”이라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었다(Barghoorn, F. C. 1943: 60).

반면 『러시아의 말』은 산업화, 근대화에 대해 훨씬 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러시아의 말』편집진이 당시 서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던 형태의 산업화를 유보 없이 찬양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러시아의 말』도 강한 반자본주의적, 반부르주아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잡지의 필자인 셸구노프는 1864년에 발표된 글에서 도시 프롤레타리아의 삶과 농민의 삶을 비교하면서 주민 대다수가 경작지를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농촌이 도시보다 낫다고 평가하였고, 다른 필자인 소콜로프는 자본주의 노동은 노동자의 “의도적 살해”라고 규정하였다(Barghoorn, F. C. 1943: 59-60).

그러나 『러시아의 말』 편집진은 산업화로 초래된 노동계급의 참상을 규탄하기는 했으나 산업화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근대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산업화, 도시화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 학자 페레베르제프는 피사레프는 “분화되지 않은 막연한 의미의 산업화의 이데올로기였다.”고 평한 바 있다(Pereira, N. G. O. 1975:146). 피사레프는 사상을 충분히 개선하지 못한 채 일찍 사망했지만, 그가 옹호했던 산업화론은 발전해서 명확한 성격을 띠게 되는 경우에 자본주의적 산업화로 연결될 수도 있고 사회주의적 산업화로도 연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유럽 사상과 문화에 대한 두 진영의 태도에도 차이가 있었다. 『동시대인』은 서유럽 사상을 존중하되 특정한 사상체계를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고 선별 수용하더라도 러시아적인 것과 혼합하여 결국 러시아적 사상 체계 속으로 편입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반해 『러시아의 말』은 서유럽의 최신 사상을 즉각 받아들였고, 특히 독일의 지적 조류를 민감하게 수용하였다. 피사레프가 이른바 속류 유물론자로 분류되는 뷔히너, 몰레쇼트, 포크트에게 열광했던 것은 바로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따라서 두 진영의 대립은 기본적으로 농민적인 것, 전통적인 것과 도시적, 서구적인 것에 대한 태도의 차이였다고 볼 수 있다. 혹자는 이를 양 진영 대표자들의 출신계급의 차이로 설명하려 하기도 한다. 페레이라는 『동시대인』 편집진은 (지방 특히 농촌의) 신학교 출신이 많았고 농민층과 더 가까웠음에 반해 『러시아의 말』 편집진은 좀더 도시적이고 서구지향적이고 세련되고 유복한 환경 출신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Pereira, N. G. O. 1975:149). 그런 이유 때문인지 『러시아의 말』 편집진은 러시아적 전통에 덜 집착했다. 사실 그들이 전통을 존중했다면 니힐리스트라는 그들의 별명자체가 무색했을 것이다.

어쩌면 이 같은 기본 노선의 차이와도 직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두 급진파 잡지 편집진은 (대중의 생활 개선을 위한) 투쟁의 방법론에서도 의견을 달리했다. 우선 그것은 대중과 엘리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젊은 지식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이견으로 나타났다(Pereira, N. G. O. 1975: 147). 피사레프는 대중의 상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한 이를 위해 대중 자신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도 인정하였지만 대중의 잠재력이 “저절로” 일깨워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그는 대



중은 계몽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그 과제를 담당해야 하는 사명은 비판적 현실주의자, 곧 충분한 교육을 받고 이미 고도의 정치적 의식을 갖춘 지식인에게 주어져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처럼 피사레프는 대중과 엘리트를 구분하면서 대중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신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1860년대 증반의 두 진영 논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의 말』 진영에 속하는 젊은 논객이었던 트카초프가 1860년대 말에 후일의 볼셰비키적 전위정당론을 연상케 하는 직업혁명이 조직론을 주장하였던 것<sup>35)</sup>도 이 같은 『러시아의 말』의 노선과도 상관이 있다고 하겠다. 인민주의적 지향성이 훨씬 더 강해서 인민대중과 함께 하는 투쟁을 지향하였던 당시의 『동시대인』지 편집자들에게 이러한 엘리트주의는 기겁케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그런 한편, 엘리트주의적인 성향이 더 강한 『러시아의 말』지 편집진이 실제 정치투쟁과 관련해서는 혁명노선을 지지한다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개혁주의적인 성향과 더 가까워 보였다는 점도 두 진영의 감정대립에 일조했을 수도 있다. 예컨대 피사레프는 정치팸플릿이라 할 수 있는 『세도 페로티 팸플릿』에서 제정정부의 전복을 선동하였고 그 과격한 내용 때문에 체포되어 수감생활을 했다. 사실 이 문서에서 그가 차르 알렉산드르 2세 정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적 인텔리겐치야의 혁명 활동이나 문필활동에 가해지는 차르정부의 탄압, 특히 망명 중인 게르첸에게 가해진 암살 위협을 비롯한 비열한 공작을 비난한 수준은 다른 어떤 열혈 혁명가들의 급진적 정부비판의 수위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기분 좋아라 하며 통치하고 있는 로마노프 왕조를 전복시키고 정치적 사회적 체제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모든 정직한 시민의 유일한 목표다.”라든가 “로마노프 왕조와 페테르부르크 관료제는 소멸해야 한다.”라는 구절에서 보듯 그는 직설적으로 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Pisarev, D. I. 1958: 146-147). 피사레프에게도 좁은 의미의 정치적 급진성이 결여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짧은 삶을 살면서 피사레프의 활동의 주된 초점은 직접적 정부전복(혁

35) 트카초프는 그 때문에 연구자들 사이에서 레닌의 선구자로 불리기도 하고 최초의 볼셰비키로 불리기도 한다(Weeks, A. L. 1968; Karpovich, M. 1944).

명) 투쟁을 위한 선전이 아니라 구식의 삶, 구식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을 같이 엮고 새로운 인간유형을 형성해 내는 운동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계몽의 힘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반면 『동시대인』은 체르느이셰프스키의 이름이 상징하듯 차르 정부에 대한 전면적 투쟁이라는 노선을 견지하는 데서 물러섬이 없었던 것이다.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말』이 도시적이고 서구적이고 세련된 대학생들 및 대학 출신 지식인들의 반권위주의적 태도를 대표했다면 『동시대인』은 농민을 비롯한 민중 일반의 삶의 방식에서 출발하여 러시아 토양에 좀더 깊이 뿌리 내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더 투박한 기질을 지닌 인민주의적 지식인들의 지향성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코즈민은 60년대 두 잡지의 분화에 대해 이렇게 총평했을 것이다. “한 잡지(동시대인)는 점점 더 인민주의의 방향으로 진화해갔고 다른 잡지(러시아의 말)는 자코뱅주의로 기울어졌다. 둘 사이의 대결은 불가피했으며 이는 1864-5년에 일어난 논쟁에서 명백히 드러났다.”(Козьмин, В. П. 1961: 62)<sup>36)</sup> 두 잡지 편집인 및 필자들 사이의 논쟁에는 1880년대 이후 인텔리겐치야 사이에서 더욱 심화될 이념상의 분화의 싹이 들어 있었다.

아들 세대는 아버지 세대와 대립하고 그들에 맞서 싸웠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가졌다. 그것은 단지 가치관에서 두 세대가 차이를 보인다는 추상적 의미의 세대갈등이 아니라 자식세대가 부모에게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구체적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예컨대 피사레프는 일체의 도덕적 전제주의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녀가 부모의 전제적 지배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 가운데 포함시켰다(Barghoorn, F. C. 1948: 203). 이는 체르느이셰프스키의 소설 『무엇을 할 것인가』의 주인공들이 전제적 부모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향한 출발점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피사레프가 체르느이셰프스키를 대단히 존경하였고 특히 그의 소설 『무엇을

36) 반면, 급진주의에 대한 심한 반감을 가진 보수적 필자 메트빈은 체르느이셰프스키를 러시아 자코뱅의 선구자로 지목하고 있다.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라흐메토프라는 인물을 창조해냈기 때문일 것이다(Methvin, E. H. 1973: 181-189).

할 것인가』를 엄청난 독창성을 가지고 씌어진 아주 탁월한 저작이라고 극찬하였던 것에서 보듯(Pisarev, .D. I. 1958: 627),<sup>37)</sup> 『동시대인』과 『러시아의 말』 편집진은 적대적 대립관계에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고 그들의 노선 차이도 아직은 누구에게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완전히 동질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가진 집단은 아니었다. 그들은 내부적으로 상이한 요소들로 구성된 비균질적 집단이었다. 러시아 전제정이 어리석고 불합리한 것을 계속하는 한에서 그들은 반항적인 아들 집단으로서 같은 범주에 묶일 수 있을 뿐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1860년대 세대는 1840년대 세대 내부의 논쟁 지형을 계승하여 이를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러시아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에 대한 각 진영의 태도와 관련한 것이다. 『동시대인』지는 전체적으로 서구적, 개인주의적인 가치보다는 러시아 농민의 삶을 중시하면서 이들의 삶에서 구현되는 러시아적 가치에 상대적으로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편이었다. 농민공동체를 계승 발전시키자는 체르느이셰프스키의 주장이나, 「어둠의 왕국」이라는 평론에서 보듯 러시아 농민의 심성에서 희망의 근거를 찾으려 하였던 도브롤류보프의 입장이 그러한 예를 보여준다. 이들은 『러시아의 말』 편집진에 비해 더 농민적 삶에 밀착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1840년대 친슬라브파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면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비해 『러시아의 말』 편집진은 상대적으로 서구에서 들어온 사조에 훨씬 더 빠른 수용자세를 보였다. 개인의 해방을 지향하는 피사레프의 태도는 더 도시적이었다. 그런 면에서 1840년대 인텔리겐치야 중에서는 서구파가 이들과 더 가까웠다.

이처럼 1860년대의 급진적 인텔리겐치야 사이에는 내부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그 차이는 1840년대 지식인들의 내부적 차이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1860년대 세대 전체는 1840년대 세대 전체에 맞서서 싸웠으며 그

37) 피사레프의 「사고하는 프롤레타리아」(1865)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평론으로서 차르정부 검열 당국은 이 평론에 대단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Pisarev, D. I. 1958: 704 편집자 주석).

싸움의 성격은 격렬했다. 1860년대 세대가 1840년대 세대를 비판한 것은 바로 후자가 충분히 급진적이지 않다는 것에 있었던 것인 만큼 그들에 맞선 싸움도 급진적일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이 싸움은 급진주의와 온건파 자유주의 사이의 싸움이였다.

1860년대 세대 전체가 격렬해져 있었다. 세대간 싸움에서도 세대 내 싸움에서도 맹렬하고 공격적이며 전투적인 말들이 오고갔다. 논쟁 상대에 대한 존경심은 없었으며 논쟁 당사자들은 비속어를 동원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일례로 자이체프는 살티코프-쉐드린에게 “그릇에 노란 액체만 가득하다”고 공격했다(Pereira, N.G.O. 1975: 142). 즉 살티코프-쉐드린의 글은 배설물이나 다름 없다는 뜻이었다. 이런 표현은 40년대 세대는 결코 쓰지 않았다. 출신계급을 막론하고 1860년대는 전투적이고 맹렬한 기질에서 윗세대 인텔리겐치야와 비할바가 아니었다.

## 6. 맺는말: ‘부친살해’와 ‘형제유친’ 사이

보수주의자들은 구세대 자유주의와 1860년대 지식인들이 드러내는 새로운 현상의 차이점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컨대 치온이라는 보수문객은 1886년의 한 글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 사회의 니힐리즘은 우리 사회의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페테르부르크 인텔리겐치야라는 하나의 같은 나무에 열린 고유한 열매이다.”(Pereira, N.G.O. 1975: 139 각주 9) 그들 눈에는 기존체제에 비판적인 집단이면 모두 똑같은 부류로 비쳤다.

젊은 세대와 윗세대의 정치성향의 차이는 늘 같은 성격을 가지지는 않는다. 윗세대가 보수적이고 젊은 세대가 진보적이라는 명제도 항상 진실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혁명 이후 성장한 젊은 세대가 혁명을 주도한 윗세대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자주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윗세대가 진보적이고 현실변혁을 지향한 사람들이었던 반면 젊은 세대가 안정추구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보일 때는 젊은 세대가 윗세대에 보이는 태도는 도전적이고 권위해체적인 것이 아니다. 세대 간의 관계가 조화롭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겠으나, 이 경우

젊은 세대가 윗세대를 부담스러워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데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젊은 세대는 수세적이고 자기방어적인 논리를 구사하기도 한다. 반면 젊은 세대가 권위파괴적이고 변혁을 주도하는 세력인 경우 젊은 세대는 공격적이고 전투적이 된다. 세대간 갈등은 아래세대가 윗세대를 경멸하는 형태로 전개된다. 새로운 지식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세계관을 전파하며 도덕적 우위까지 점하는 아랫 세대는 윗세대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극복의 대상으로만 여긴다. 어느 경우이나 세대간 갈등은 당사자들에게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운 싸움을 안겨주지만 젊은 세대가 안정추구적인 사회보다, 공격적이고 혁명지향적인 사회에서 세대간 갈등은 더 격렬하게 전개될 수 밖에 없다.

러시아의 1860년대 세대는 1840년대 세대와 다른 세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세대간 갈등에서뿐 아니라 세대내 논쟁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 특징은 성급함, 맹렬함, 단호함이다. 1840년대 세대는 논쟁을 하더라도 점잖은 어조로 하였다. 40년대 세대 내에서도 슬라브파-서구파 논쟁이 있었지만 그것은 교양있는 신사들이 서로 ‘존경하는 논쟁상대’를 예우하고 존중하면서 벌이는 우아한 논쟁이었다. 맹렬한 기질로 유명한 벨린스키가 고골리를 비판하는 서한을 썼지만 그 또한 어디까지나 점잖은 분노의 표현이었다. 18세기 유럽의, 인명피해가 심하지 않은 소규모 전쟁들을 일컫는 유명한 표현인 “레이스로 덮인 전쟁”(lace wars)이라는 수사를 모방하여 표현하자면 그것은 ‘연미복에 감싸인 논쟁’이었다. 그런데 1860년대의 급진파 지식인들은 보수진영이나 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할 때뿐 아니라 다른 성향의 급진주의자들을 비판할 때에도 엄청나게 격렬하거나 전투적인 어휘를 썼고 비속어나 날선 인신공격도 마다하지 않았다. 당사자들의 출신계급과 상관없이 논쟁의 문화가 확실히 귀족적인 것에서 평민적인 성격의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의 글과 논쟁 속에는 유유자적하며 고담준론을 즐기는 귀족 지식인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 분노하며 힘겹게 생활하는 평민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마치 인성이 바뀌듯 1860년대 인텔리겐치야라는 한 세대 전체의 문화와 심리적 특징이 바뀐 것이다. 1860년대 세대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 부친살해는 물론 형제 살해도 마다하지 않을 것 같은 자세로 돌아서 있었다.<sup>38)</sup> 그러나

형제 간의 불화는 1860년대에는 아직 극복불가능한 근본적 대립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사회역사적 경험의 차이와 출신계급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근본적 세계관의 차이보다는 어떤 작은 차이가 활동과정에서 확대되면서 생겨난 거리, 동질성 내의 비균질성을 의미하였다. 형제간의 거리는 부자 간의 거리보다는 좀더 가까웠고, 형제는 서로 싸우면서도 여전히 연합하여 아버지들에게 맞서곤 하였다. 형제들이 결정적으로 결별하고 서로 적대하게 되는 것은 몇 십년 후, 러시아 혁명 과정의 일이었다.

---

38) 여기서 부친살해나 형제살해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형제살해란 급진적 인텔리겐치야 가운데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제압하고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 이 인호(1980), 「1860년대 러시아의 급진주의 운동: -해석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 -」, 『러시아 지성사 연구』, 문학과 지성사.
- 토크빌, 알렉시스 드 (2006), 『양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 이용재 옮김, 박영물 출판사.
- 폼퍼, 필립(2006), 『네차예프, 혁명가의 교리문답』, 윤 길순 옮김, 교양인.
- Витте, Граф С. Ю.(1960), *Воспоминания в 3 томах, том I*,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 Добролюбов, Н. А.(1978), *Избранные статьи*,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Советская Россия>.
- Достоевский, Ф. М.(1980), "Господин Шедрин, или раскол в нигилистах(1864)",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тридцати томах, том 12, Статьи и заметки 1862-1865*, Ленинград: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 Иванов-Разумник (1911),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мысли, том 2*, Ст-Петербург.
- Козьмин, Б. П. (1961), *Из истории революционной мысли в России.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 Писарев, Д. И. (1956), *Реалисты*, Моск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 Плоткин, Л.(1962), *Д. И. Писарев. Жизнь и деятельность*, Москва-Ленинград: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 Нечкина, М. В.(ред.) (1978), *Революционная ситуация в России в середине XIX века*,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 Чернышевский, Н. Г.(1974),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пяти томах, том 1, Что делать? Из рассказов о новых людях*, Москва: Библиотека <Огонёк>; Издательство <Правда>.

- Barghoorn, F. C. (1948), "D. I. Pisarev: A Representative of Russian Nihilism", *The Review of Politics*, vol. 10, no.2.
- (1943), "The Russian Radicals of the 1860's and the Problem of the Industrial Proletariat"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American Series*, vol. 2, No.1.
- Becker, C.(1959),"*Raznochintsy*: The Development of the Word and of the Concept", *American Slav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18, no.1.
- Bertaux, D.; Linhart, D; Wita, B. le (1988), "Mai 1968 et la formation de générations politiques en France", *Le Mouvement social*, no. 143, *Mémoires et Histoires de 1968#*.
- Braungart, R. G.(1971), "Family Status, Socialization, and Student Politics: A Multivariate Analysi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7, no. 1.
- Brower, D. R.(1969), "Fathers, Sons, and Grandfathers: Social Origins of Radical Intellectuals in Nineteenth-Century Russia", *Journal of Social History*, vol. 2, no. 4.
- Brym, R. J.(1977), "A Note on the "Raznochintsy", *Journal of Social History*, vol. 10, no. 3.
- Cherrington, R. (1997), "Generational Issues in China: A Case Study of the 1980s Generation of Young Intellectual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48, No. 2.
- Confino, M.(1972), "On Intellectuals and Intellectual Traditions in Eighteenth- and Nineteenth-Century Russia", *Daedalus*. vol. 101. *Intellectuals and Tradition*.
- Coquart, A.(1946), *Dmitri Pisarev (1840-1868) et l'idéologie du nihilisme russe*, Paris: Institut d'Études Slaves de l'Université de Paris.
- Demartini, J. R.(1985), "Change Agents and Generational Relationships: A Reevaluation of Mannheim's Problem of Generations", *Social Forces*, vol. 64, no. 1.
- Dunlap, R.(1970), "Radical and Conservative Student Activists: A Comparison of Family Backgrounds", *The Pacific Sociological Review*, vol. 13, no. 3.
- Foner, A.(1974), "Age Stratification and Age Conflict in Political Lif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9, no. 2.
- Gleason, A.(1983), *Young Russia : The Genesis of Russian Radicalism in the 1860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zlett, J. D. (1992), "Generational Theory and Collective Autobiography", *American Literary History*, vol. 4, No. 1.
- Karpovich, M. (1944), "A Forerunner of Lenin: P. N. Tkachev", *The Review of Politics*, vol. 6, no.3.
- Mannheim, K.(1952, 2007), "The Problem of Generation",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Collected Works* vol. V, New York: Routledge.
- Methvin, E. H. (1973), *The Rise of Radicalism: The Social Psychology of Messianic Extremism*, New York: Arlington House.
- Pachmuss, T. (1962), "Dostoevsky in the Criticism of the Russian Radical Intelligentsia", *Russian Review*, vol. 21, no. 1.
- Pereira, N. G. O.(1973), "N. G. Chernyshevsky as Architect of the Politics of Anti-Liberalism in Russia", *Russian Review*, vol. 32, No. 3.
- (1975), "Challenging the Principle of Authority: The Polemic between *Sovremennik* and *Russkoe Slovo*, 1863-65," *Russian Review*, vol. 34, no. 2.
- Pilcher, J.(1994), "Mannheim's Sociology of Generations: An Undervalued Legac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45, no. 3.
- Pisarev, D. I. (1958), *Selected Philosophical, Social and Political Essays*,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 Pozefsky, P. C.(2003), *The Nihilist Imagination : Dmitrii Pisarev and the Cultural Origins of Russian Radicalism (1860-1868)*, New York: Peter Lang.
- Riffer, R. L. (1972), "Determinants of University Students' Political Attitudes or Demythologizing Campus Political Activism",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2, no. 4.
- Ryder, N. B.(196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0, no. 6.
- Seduro, V. (1957), *Dostoevski in Russian Literary Criticism 1846-1956*,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herkat, D. E.; Blocker, T. J.(1994),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Sixties' Activities:

- Identifying the Influence of Class, Gender, and Socialization on Protest Participation", *Social Forces*, vol. 72, no. 3.
- Spitzer, A. (1973) "The Historical Problem of Generation",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78, no. 5.
- Turgenev, I. (1966), *Fathers and Sons. The Author on the Novel, Contemporary Reactions, Essays in Criticism* ed. and tr. by R. E. Matlaw, New York: Norton & Company.
- Valentinov(1968), *Encounters with Lenin*, tr. by P. Rosta & B. Pear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Venturi, F. (1960), *Roots of Revolution: A History of the Populist and Socialist Movements in Nineteenth Century Russia*, tr. by F. Haskell, New York: Alfred A. Knopf.
- Weeks, A.I.(1968), *The First Bolshevik: A Political Biography of Peter Tkachev*,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University of London Press.
- Woehrlin, W.(1971), *Chernyshevsky: the Man and the Journalist*,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원고 접수일: 2007년 9월 30일

게재 결정일: 2007년 11월 12일

ABSTRACT

---

Fathers vs. Sons, Sons vs. Sons:  
An Analysis of the Generational and Intra-generational  
Conflicts of Russian Intellectuals of the 1860s.

Hahn, Jeong-Sook

Conceptualized by Karl Mannheim as a meaningful factor of social change, generational conflict is a modern phenomenon. It presupposes the rise of a generational group with specific generational (self-) consciousness searching for its due location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Such a group runs into conflicts with other (mainly parental) generation(s). Specific social and historical experiences are decisive in the formation of a historically meaningful generation. Russian young radical intellectuals of the 1860s - as whose representatives were concretely shaped in the persons of Bazarov in Turgenev's *Fathers and Sons* and of Rakhmetov in Chernyshevsky's *What is to be Done?* - were a self-conscious generation group *par excellence*. Witnessing the defeat of Russia in the Crimean War, the process of the abolition of serfdom and the following explosion of discontents of the peasantry, they became convinced of the changeability of an age-long social structure and the weakness of a rigid and oppressive regime. Hence their revolt against their father generation. The class difference of the intellectuals of the respective generation was not the main but a subsidiary

factor in the formation of the inter-generational division line. The radical intelligentsia of the 1860s also experienced an intra-generational conflict. They were divided at least into two opinion groups - the group of more peasantry-oriented populists and the group of more urban-oriented individualists. The *Sovremennik - Russkoe Slovo* dispute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860s is an evidence of the intra-generational conflict. Such division occurred due to more subtle sub-differences of experience within the same generation group.